

지면안내	<p>02 총학, 부실한 인수인계 -작년 총학생회의 인수인계 부재로 학생요구안 실행 난항</p>	<p>03 상반기 학생회비 예산회의 진행 -단대별 공개기구의 1학기 사업 진행 계획</p>	<p>04 '반값 등록금을 요구한다' -지난 2일 대학로에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p>	<p>05 학생양과 학생제의 -인간 사회에서 받아지는 학생 양 만들기과 학생제의 연관 관계</p>	<p>07 동서양의 동물복지 -동물들 바라보는 동서양의 다른 시각 그 과거와 현재</p>	<p>08 키치문화와 건축 -대중 예술과 소통하며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키치</p>
------	---	--	---	--	---	--

## 삼학송

### 학생들, 못된 고양이에게 이빨을 드러내다

요즘 대학가에 전체학생총회 바람이 불고 있다. 등록금 문제와 국·공립대학 법인화문제 등 굵직한 문제들이 잇따라 이어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른바 '비운동권'이 특색하던 현재 대학가의 대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희대는 3% 등록금 인상 반환을 목적으로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동시에 전체학생총회를 개최했다. 경희대 대학본부는 더 나은 학생 복지를 약속하고 등록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등록금이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규모는 축소되고 수강 신청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등 복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학교는 학생들을 계속 실망시킨 것이다. 수 천 명의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강경하게 등록금 인하를 요구한 결과 경희대는 공식입장을 철회해 인상을 발표했던 등록금을 동결했다. 인상된 등록금 분량의 2/3는 환급하며 1/3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전체학생총회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대학 펀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문제까지 더해진 대한민국의 대학가의 우울한 현실 속에서 이는 실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학교는 링의 사각지대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쌓아올린 적립금으로 돈놀이를 하고 국·공립대를 법인화하려 한다. 친정부지로 치우는 등록금도 문제다. 오죽하면 책 이름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일까. 등록금이 그 값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대학생들을 더욱 미치게 한다. 쥐도 공지에 물리면 고양이들 똥다. 학생들은 못된 고양이에게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동안 등록금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우리 학교의 모습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인가. 새로운 학생회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재학생들이 이에 발맞추는다면 우리 학교도 대학가 등록금 부정에 희망의 역사를 쓰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상이 편집국장

## 제27대 총학 '드림하이' 선본 김태성 · 김미정 후보 당선

## 제18대 야총 '톡톡' 선본 이혜선 · 황인혁 후보 당선

지난 3월 28일~2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제 27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단일후보 기호 1번 '드림하이'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김태성(정통 4)총학생회장 후보와 김미정(한국어문 4)부총학생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는 총 재적인원 7천241명 중 3천998명이 투표에 참여해 55%의 투표율을 보였다. 찬성 1천905표(86.75%), 반대 390표(10%), 무효 156표(4%) 오차 63표였다.

김태성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열심히 땀 흘려가 좋게 나와 기쁘다. 운이 좋았던 것 같다"며 "학생들이 쉽게 찾아오는 문턱이 낮은 학생회를 만들고 싶다. 고학원 학생회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미정 부학생회장 당선자는 "단기간 교류를 활성화시켜 하나되는 한성인들의 응집력을 외부로 알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도록 하고 싶다"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촉구했다.

한편 2년 만에 꾸러진 제18대 야간총학생회(이하 야총) 선거에서 기호 1번 'Talk Talk' 선거운동본부는 이혜선(멀티 3)야간총학생회장 후보와 황인혁(행정 3)야간부총학생회장 후보가 기호2번 'He's different'보다 189표 앞섰다.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인 야총선거는 총 재적인원 2천597명 중 1천390명이 투표에 참여해 5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야총선거는 기호 1번 '톡톡'이 759표(55%), 기호 2번 'He's different'가 570표(41%)를 얻었으며, 무효 61표(4%), 오차 5표가 있었다.

이혜선(멀티 3)야간총학생회장 당선자는 "2년간 야간대학 학생회의 부재로 인해 선거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과 달리 선거가 잘 이뤄진 것에 감사드린다"며 "2년간의 부재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톡톡이란 이름에 걸맞게 대화하는 학생회, 학우분들의 소리를 듣고 실천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졸업준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의 공개기구도 꾸러졌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업위)선거에서는 '비상'의 임부리(경영 4)정위원장 후보와 최우라(경영 3)부위원장 후보로 결정됐다. 이번 졸업위 선거는 대의원 총 158명 중 138명이 참여해 87%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찬성 122표(88%), 반대 11표(8%), 무효 5표가 나왔고, 오차 2표가 있었다.

학생복지위원회 선거에서는 총 재적인원 158명 중 140명이 투표에 참여해 8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기호 1번 '즐거찾기' 선거운동본부는 이번 선거에서 75표(54%)를 얻어 기호 2번 '만족' 선거운동본부의 50표(36%)에 25표 앞서 문기원(멀티 4)정위원장 후보와 최희주(멀티 4)부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 문기원(멀티 4)정위원장은 "경선이어서 힘들

게 당선된 만큼 열심히 하겠다"며 "즐거찾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학생들이 찾아주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혜선 기자 odory1@hansung.ac.kr



## 사·예·공 모든 단대 학생회 건설

### 사대 기호 2번 '만족' 선본 당선, 예대 'LEOK' 선본 당선, 공대 '특공대' 선본 당선

지난 3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선거에서 사회과학대(이하 사대), 공과대학(이하 공대), 예술대(이하 예대)의 학생회가 모두 세워졌다.

이번 사대 학생회 선거에는 총 인원 2천167명 중 1천 135명이 참여해 52.3%의 투표율을 보였다. 기호 1번 508표(44.75%), 기호 2번 581표(51.18%), 무효 46표(4.05%)가 나와 사대를 이끌 어갈 대표는 강범석(경제 3)정학생회장, 양훈민(행정 2)부학생회장이 맡게 되었다. 강범석 정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위치가 권력을 가진 사람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학우들과 동등한 선에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예대 학생회 선거에는 총 인원 1천661명 중 974명이 참여해 58.64%의 투표율을 보였다. 찬성 903표(92.7%), 반대 63표(6.5%), 무효 8표(0.8%)로 'LEOK' 예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옥형빈(의예 3)정학생회장과 권혜원(인테리 4)부학생회장이 당선됐다. 옥형빈 정학생회장은 "처음 하는 자리인 만큼 떨리지만 믿어준

학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약에 대해서는 "등록금 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공약들은 모두 방종결 의안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방종결의인 실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대 학생회 선거에는 총 인원 1천977명 중 1천111명이 참여해 56.2%의 투표율을 보였다. 찬성 1천44표(90.04%), 반대 65표(5.83%), 무효 46표(4.13%), 오차 4표(0.36%)로 '특공대' 공대 선본의 최민지(멀티 4)정학생회장과 배재현(정

시 2)부학생회장이 당선되었다. 배재현 부학생회장은 "우리를 믿고 뽑아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4개 단대 중 최고의 단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 내건 공약은 모두 1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공약을 빠르게 실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학생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공대 학생에게 열려있는 학생회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학술정보관 주최 [저자와의 만남]

★ 저자: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교수

[저자 소개]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강의, 최고의 멘토  
- 저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 현재 베스트셀러 1위

★ 일시: 2011년 5월 18일(수) 14:00 ~ 16:00

★ 장소: DLC (미래관 B1층)

☞ 보다 구체적인 사항 및 변경사항 발생시 5월초에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20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20대...  
지금, 이 힘든 시대를 헤쳐나가는 한성인들을 위하여  
김난도 교수님의 강연을 기획했습니다.  
저자의 따뜻한 위로와 냉철한 지성이 함께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한성인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고,  
가슴속에 품어왔던 여러분의 꿈에 한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책 내용 중에서..... (이 부분 생략)]  
그때, 인생을 얼마나 살 것 같았는지 이 질문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물어보겠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24시간에 비유한다면, 그때는 지금 몇 시쯤을 살고 있는 것 같았는지 한번 계산기를 들고 생각해 보자. 그때가 대학을 스물셋에 졸업한다 하고, 하루 중 몇 시에 해당하든지, 한국인의 평균연령이 80세를 된다고 치면, 80세 중 24세는 24시간 중 몇 시? 아침까지 12분.  
생각보다 무척 이르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잘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시각이다.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대학을 졸업하는 스물셋이 고작 아침까지 12분이다. 그렇다. 아직 많이 남았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조금 늦어졌다고 하루정체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나는 너무 늦었어!"라고 걱정 지으려는 것은, '사실'의 문제라 아니라 '자기기반'의 문제다. 혹시라도 포기나 좌절의 빌미줄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때, 아직 이르다. 적어도 무언이든 바꿀 수 있을 만큼은.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  
Part 1. (인생시계)중에서

# 아무도 모르는 학생요구안

## 작년 학생요구안 인수인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요구안 실행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작년 학생회장단이 협상한 학생요구안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록금 심의기간이었던 지난 1월 21일 학생회장단에 의해 결정된 학생요구안은 ▲적립금 적립 및 운용 계획 발표 ▲성적 우수자 학비 감면 비율 상향, 교육훈련지원금 증액, 근로 장학금 증액 등을 통한 장학금 증액 ▲실습 장비 개선·보수 및 컴퓨터 학습실 증설을 통한 수업 환경 개선 ▲스마트폰 보급 및 사이버 강의 등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학생증 도입을 통한 U-캠퍼스화 추진 ▲사물함 추가 보급, 도서관 및 노트북 대여 시간 연장, 열람실 24시간 개방을 통한 학생 복지 강화 ▲학생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학생회실 리모델링 ▲등록금 금액 단대별 차등 인상 ▲학생 불만사항 접수창구 일원화 및 신속한 처리 등 총 8안으로 현재 학생의 메아리에 울려왔다.

문제는 이 내용이 학교와의 협의로

정해진 최종안인지 아니면 처음에 학생회가 요구한 학생요구안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게시된 글에는 "등록금 인상 조건으로 8가지 사항의 학생 요구사항을 시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버젓이 나와 있다.

특히 전(前)총학생회장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새로 꾸려진 총학생회마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태성(정통 4총학생회장)은 "현재 등록금 협의 관련한 학생요구안이 제대로 인계되지 않아, 학교 측에서 현재 학생들에게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낙산의 메아리에 나온 학생회실 리모델링 안은 모든 학생회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에 의하면 학생회실 리모델링은 단대 학생회실까지만 해당된다. 이에 대해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이런 잘못된 정보로는 효율적인 학생요구안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 지난 1월 21일 청의관 총학생회실에서 전년도 학생회장단이 회의를 통해 학생요구안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다. 다시 말해, 작년 학생회가 최종 학생요구안에 대한 정보를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학생요구안을 만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상호협조 총학생회장과 만나서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작년까지의 학생요구안은 학생들의 참여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학생요구안과 관련한 내용을 대자보로 게시해 학생들이 학생요구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장

기적으로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학생들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백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간추린소식

#### 매주 업데이트되는 취업관련정보를 한 눈에

취업지원팀에서 지난 3월 28일부터 한성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취업 hot news"라는 안내문 게시를 시작했다.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공채, 인턴 모집시기부터 시장의 동향과 같은 취업관련 정보이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취업정보센터에 게시했던 정보를 중요사항 위주로 재구성하고 링크를 걸어 하나의 안내글로 올려놓은 것이다. 안내문을 열람한 후 첨부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다. 일일이 찾아보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학생들의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승식(취업지원팀)원은 "학생들의 구직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취업률 제고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구직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밝혔다. 추후 안내글은 취업정보센터 공지사항에 매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 저자와의 만남 내달 18일 열려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서울대 소비자학과)교수를 초청한 저자와의 만남이 오는 5월 18일 오후 2시 미래관 DLC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초청된 김난도 교수는 베스트셀러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로 서울대생이 뽑은 최고의 멘토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트위터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청년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올해 18회째를 맞이한 저자와의 만남은 매해 특정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여는 학술정보관의 정기 행사이다. 이는 도서관에서 책으로만 만나던 저자를 직접 만나 감명과 깨달음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개편됐다.

정미영(학술정보팀)원은 "모두 어려운 시기에 격려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 중 김난도 교수의 저서가 유독 화제가 된 이유는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기에 모두 주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김 교수를 초청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학생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떨쳐버리고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희망과 격려의 강연이 되었으면 한다"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이날 정시에 강연에 참석하는 학생에게 출석확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 셈들에서 <안티폭스> 영화 강연회 열려

지난 1일 탐구관 지하 102호에서 동아리 '셈들'이 영화 <안티폭스(antifox)>의 강연회를 가졌다. <안티폭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방송국 FOX 채널의 비관론을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이날 초청 연사인 한겨레 산문 이재성 기자는 "언론사의 상황에 따라 사실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론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민들의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리 셈들은 매 학기마다 사회 문제와 관련해 강연회를 개최해왔다. 작년에는 신경민 MBC 선임기자를 초청해 '방송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회를 주관한 셈들의 박병인(경영 3)회장은 "학교에서 강연회를 여는 기회가 다른 학교에 비해 흔하지 않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학 친선 배틀 'Battle Experience' 열려

지난 9일 청의관 소강당에서 댄스 동아리 'N.O.D'가 주관한 대학 친선 댄스 배틀 'Battle Experience'가 열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배틀 경험이 많지 않은 아마추어 댄서들에게 무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20여개 수도권 대학에서 온 2인이 1조가 되어 모두 32개 팀이 참가하고, 토너먼트 형식으로 최종 우승자를 뽑는다. 승패는 외부 판정단의 판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N.O.D' 회원 안재철(영어영문 4)학생은 "이 대회는 댄스들이 친목을 다지고 후배들의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 개최되었다. 우리 팀도 대회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친목 도모가 목적이기 때문에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또 많은 대학생들이 대회 참가를 위해 우리 학교를 찾았기 때문에 한성대의 위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올해 교직원 인건비 2.5% 인상

홍익대학교	100,604	78,949	68,206	41,281	서울기독교대학교	86,860	59,423	51,469	46,828
원광대학교	100,586	102,454	78,759	-	경동대학교	86,400	71,060	59,750	45,530
대구기독교대학교	100,377	88,547	73,638	65,928	장로회신학대학교	86,395	82,725	70,807	32,201
한성대학교	100,089	79,379	69,037	45,470	신남대학교	86,195	70,589	61,039	48,253
단국대학교	100,013	78,946	67,376	58,278	경상대학교	85,714	69,413	61,036	49,779
성신여자대학교	99,967	80,662	65,711	29,320	대구한의대학교	85,425	71,070	62,250	46,970
동아대학교	99,815	82,123	67,680	63,422	전북대학교(분교)	85,312	81,275	74,660	57,493
단국대학교(분교)	99,726	79,376	64,689	57,974	신원대학교	85,043	69,283	62,168	47,963
안양대학교	99,680	79,058	66,973	-	서경대학교	84,796	75,182	59,585	53,601
한남대학교	99,363	79,385	67,761	52,541	동신대학교	84,748	75,551	59,161	43,149
북원대학교	98,957	82,154	70,864	32,351	한동대학교	84,572	68,248	61,508	45,233
연세대학교	98,205	78,741	70,137	47,797	대진대학교	84,390	79,835	72,144	57,149
세종대학교	98,130	81,494	62,787	42,825	한국해양대학교	84,290	70,486	64,728	56,951
동국대학교	98,039	72,971	46,388	-	대학교	84,231	75,523	64,058	41,836

▲ 지난 4일자 서울신문에 발표된 '2010 대학별 직원별 교수 연봉 자료'

올해 교수와 직원의 본봉이 2010년 대비 2.5% 인상됐다. 또한 교수의 연구보조비, 야간 강좌 수강 등도 2.5% 인상에 책정됐다.

연구 보조비는 교수 직급별로 ▲교수(Ⅲ)는 125만3천원에서 128만4천원으로 ▲교수(Ⅱ)는 114만8천원에서 117만7천원, ▲교수(Ⅰ)는 104만3천원에서 106만9천원으로 인상됐다. ▲부교수는 82만4천원에서 84만5천원, ▲조교수는 62만2천원에서 63만8천원, ▲전임강사는 47만6천원에서 48만8천원으로 인상됐다. 야간강좌수당은 작년 2학기부터 기존 9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물가 인상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책정한 결과"라고 전했다. "물가상승률은 4%인 반

면 2년간 임금이 동결되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우(기획협력팀)장은 "등록금 인상분이 모두 인건비로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니다"며 "보통 공무원의 본봉 인상을 수준을 따르는 게 통상적인 관례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해 2.5%로 인건비를 책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4일자 서울신문에 발표된 '2010 대학별·직위별 교수연봉'에 따르면 우리대학 교수임금은 4년제 대학 213개 중 44위(2010. 4 교수직급 기준)로 평균(8천3백 46만원) 이상의 수준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학교 교수 연봉은 ▲교수는 1억8만9천원, ▲부교수는 7천9백3십 7만9천원, ▲조교수는 6천9백3만7천 원, ▲전임강사는 4천5백4십7만원이

다. 장영우 팀장은 이 자료에 대해 "어떤 수당을 연봉 액수에 포함 시킬지에 대한 기준치가 다를 뿐 아니라 전국 지역별로 임금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그 자료를 절대적인 수치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에 등록금이 2.6% 인상된 직후 학생들은 씩씩하다는 반응이다. 오연석(매디 3)학생은 "이번 인건비 인상은 시기 상 누구라도 등록금 인상과 연관 지어 생각하게 될 것 같다. 등록금도 올랐는데 학교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패션의 범위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디렉 플라이쉬만(Dirk Fleischmann·회화)교수의 패션 브랜드인 마이패션인더스트리(myfashionindustries)의 2011 S/S 컬렉션 'Made in North Korea'가 지난 2일부터 3일 양일간 서울 ARKO 극장에서 열렸다. 디렉 교수는 마이패션쇼(myfashionshow)를 통해 생산과정에서 소외된 상품 물신화의 현상을 파헤치는 시도를 선보였다.

디렉 교수는 "아름다운 모델이 옷을 걸치고 캣워크에서 워킹하는 동안, 옷이란 실재보다 훨씬 환상적인 무언가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옷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는 그 환상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패션쇼에 등장한 모든 옷의 생산 공정을 직접 관찰하며 패션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보이고 패션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했다"고 패션쇼의 주제를 설명했다. 마이패션쇼엔 티셔츠를 실제로

제작했던 개성공단의 공장주인 문선중(문창기업)대표가 관객들을 맞았고, 재봉사가 셔츠의 실제 샘플을 가지고 당시의 재봉 작업을 실시간으로 재연했다. 관객들은 로비부터 백스텟까지 패션쇼의 조연으로 참여했다. 프리뮤직 작곡가이자 색소폰 연주가인 알프레드 하르트(Alfred 23 Harth)는 한국에서의 삶과 북한의 정치적 이슈를 바탕으로 창작한 음악을 연주했고 진행자가 자 해설자로 이영준 비평가가 무대에서 비평을 맡았다.

이날 쇼를 주관한 김은주(23. 대학원)는 "모두가 패션을 환상적인 트렌드로 보고 열광하는 표면에서 벗어나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보는 컨셉이 인상적인 패션쇼였다"고 평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2011년 향방기본훈련 참석 안내

- 일시** : 2011년 5월 2일(월) ~ 4(수), 09:00~18:00(8H)  
\* 개인별 훈련 일자 및 시간 : 한성공지 첨부파일 참조(성명 순 및 군번으로 확인)  
단, 2011년 7월(방학기간) 훈련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예비군대대로 개별 연락바랍니다.
- 장소** : 덕릉예비군훈련장(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당고개 소재)
- 훈련대상** : 한성대학교(원) 직장예비군 중 1~6년차 전원
- 행정사항**
  - 신분증 필히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복장 : 규정된 예비군복 착용
  - 09:00까지 입소, 지각할시(09:30이전 입소자) 추가교육 1시간
  - 09:30 이후 도착 시 입소불가하며 무단불참 시 고발조치 됨
  - 문의전화: 02-760-4176, 010-5075-6553(예비군대대 : 우촌관 608호) / 02-934-8764~5(덕릉예비군훈련장)

- 5 기타**
  - 대중교통 이용 시 : '전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건너편'에서 33번, 33-1번, 10-5 번 시내버 스승차 당고개 덕릉예비군훈련장 입소
  - 또는 '전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건너편'에서 학교 예비군 수송용 용역 버스 이용 덕릉예비군훈련장 입소
  - 자가 차량 이용 시 : 삼선교 →미아리고개 →드림랜드 →당고개역 →덕릉예비군훈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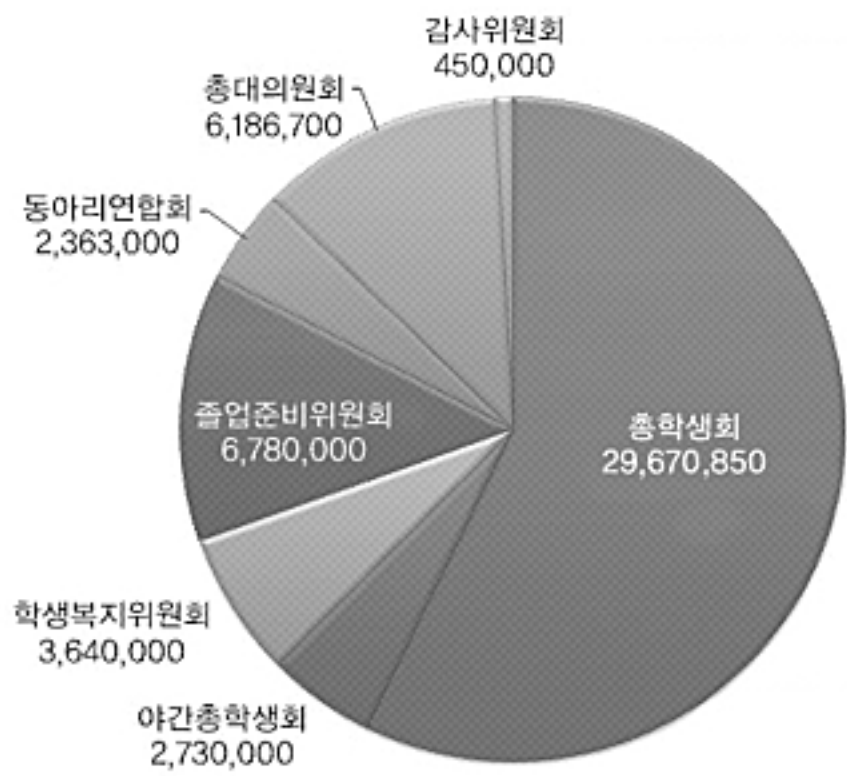
※ 기숙사 등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해 학교 스쿨버스 1대를 1회 운행함. 이용에 편리한 사람은 훈련 당일 07:10까지 청의관 앞 주차장 학교 스쿨버스(1대)에 승차 바람(계획된 시간에 지체 없이 출발 할 승차 시간 엄수 할 것)  
- 필요시 개인별 학교 예비군대대(우촌관 608호, 전화 02-760-4176)에 방문하여 훈련소 집합지시를 수령, 지참하여 훈련에 참가할 것

※ 단 전입신고를 미 실시한 대학교(원)예비군대원은 한성대학교 예비군대대에 전입신고를 하시지 바람. 전입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 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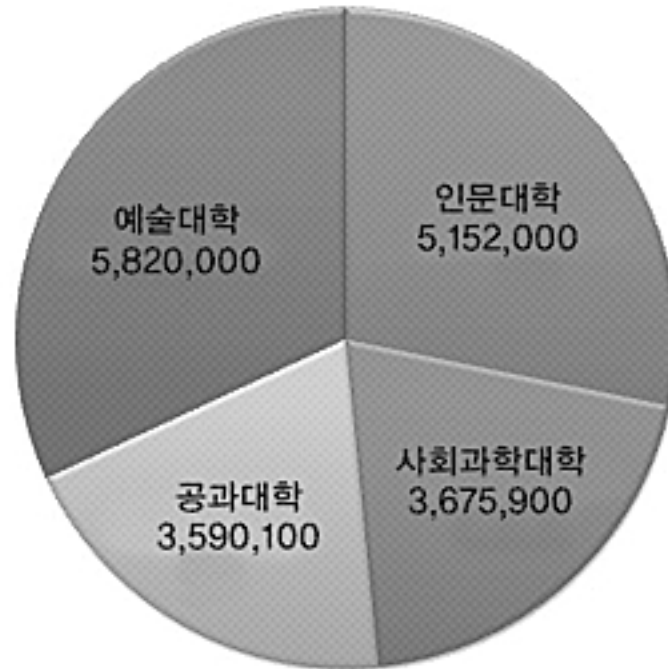
# 상반기 학생회비 예산회의 열려 예산안 인준, 14일 대의원총회서

## 1학기 학생회 사업계획 훤히 보여

〈총학생회 및 공개기구 예산편성〉 단위: 원



〈단과대별 예산편성〉 단위: 원



지난 5일 각 학생회 및 공개기구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학생회비 예산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각 학생회 대표와 공개기구는 1학기에 진행할 사업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오는 14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인준을 받을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예수대학의 예산이 비중있게 책정됐다.

### 총학생회 및 공개기구

▲총학생회 '드림하이'는 대동제와 농촌연대활동(이하 농활), 확대간부수련회를 주요사업으로 책정했다. 총학생회는 오는 5월 18일부터 20일에 진행될 예정인 대동제 행사를 위해 무대비용에 7백50만원, 초청가수 공연에 600만원을 편성했다. 농활도 종전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금액은 293만원을 책정했다. 세부사항은 아직 미정이다. 대부분의 비용은 참가자를 위한 차량대여와 단체티 제작, 운영비로 쓰인다.

이 외에도 단대별 행사를 다른 학내소식지 발간 및 등록금관련 서명 이벤트 등 공약사업비로 73만원, 학생요구안의 리플렛, 현수막제작에 76만원, 국토대장정에 50만원이 책정됐다.

▲야간총학생회는 야간학우들의 만남, 게릴라 야식배부, 야간총학생회실 개선을 합쳐 273만원의 예산을 계획했다.

이혜선(멀티 3)야간총학생회장은 "평소 야간에 학교에 남아 공부할 하는 학우들을 위해 5월 중 게릴라 형식

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게릴라 야식배부 사업을 설명했다.

▲졸업준비위원회의 주요사업은 대기면접 가이드 북과 앨범촬영이다. 대기면접 가이드 북은 우리나라 300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관련정보와 채용 정보, 면접 정보 등의 자료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5백85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외에도 졸업앨범 촬영 시 다과류, 커피를 제공시 필요한 예산은 33만원이 책정됐다.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시험기간 야식배부와 시네마데이, 금연캠페인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한다. 중간·기말고사 시험기간에 야식배부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170만원을 책정했고 시네마데이는 지난해의 달리 창외관 소강당, 낙산관 등 교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다소 변경됐다. 금연캠페인은 금연패치와 은단의 수량이 50개로 전년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다. 운동기구 대여 및 플라로이드 사진기를 대여하는 상주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총대의원회는 대의원학교를 주요 사업으로 이에 약 514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의원학교는 간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부수련회로 대의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대의원의 화합을 위한 자리다. 이 외에도 대의원에게 무료문자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각과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의원들의 연락을 취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통신비의 부담

을 줄이고 간편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아리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동아리박람회서 동아리책자 제작으로 약 171만원을 사용한 상태이며 작년 하반기와 동일하게 동방미화 컨테스트를 실시한다.

### 단과대 학생회

▲인문대 학생회는 크게 인대체전, 시험기간 간식배부, 셀프인쇄소를 계획하고 있다. 인대체전은 4월 마지막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사진전은 5월 초, 우촌관 앞 잔디광장에서 열릴 예정으로 각 과에서 진행하는 행사사진을 모아 전시하며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서 기획했다. 현행 행사는 현행사진을 찍어 나눔을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사회과학대 학생회에서는 야식·중식사업, 사업공청회, 사대체전, 중고도서커넥터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강범석(경제 3)사회과학대 회장은 "차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학우들에게 알리고 지난 사업의 피드백을 받는 등의 사업공청회를 열 것이다"고 말했다.

사대체전은 사회과학대 학우들의 단체의식 고취를 위해 진행되는 연간 주요 행사로 1백32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또한 중고도서 커넥터는 사회과학대 학생회실 앞에서 교재 등의 중고 도서를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는 신

규사업이다. 사회과학대 측은 "책이 필요한 학생들과 필요없는 학생들 간의 연결점을 구성해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에 가급적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예수대 학생회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중간·기말고사 야식지원, 예대주점, 예대 프리마켓 사업 등으로 각각의 사업에는 189만원, 150만원, 98만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예수대 야식사업은 간식보다 끼니의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타대의 같은 사업보다 비중이 크게 다뤄진다.

올해 상반기에는 '예대 프리마켓'이 진행되는데 이는 각 학과별 특성에 맞게 작품을 판매하고 전시하는 신규 사업이다. 옥형빈(의예 3)예수대 학생회장은 "과 별로 장소를 정해 학생들에게 입지 않는 옷이나 과제로 만든 작품 등을 받아 전시하고 판매한다. 일반 프리마켓을 떠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또 "평일에 진행되므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어쿠스틱 뮤지션을 섭외할 계획이며 밤엔 DJ를 초청해 라운지파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과대 학생회는 공대체전, 게릴라 이벤트, 셀프인쇄소, 휴게실 리모델링, 소모임 지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대 내 상반기의 가장 큰 행사인 공대체전은 약 134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혜선 기자 odory11@hansung.ac.kr

### 교원학생 수기

## 외국생활 하면서 대화에 친숙해지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타지에 오자마자 바로 현지 언어를 바로 구사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왔다고 가정해도 말이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며 현지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한 아름 안고 첫 번째 비행기 경유지인 애크랜타에 도착했습니다.

갈아타야 하는 비행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배고프기도 하여 햄버거 사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푸드가 아닌 좀 신선해 보이는 음식을 파는 것 같은 곳으로 가 햄버거를 구매하기로 맘을 정했습니다. 줄을 서며 어떻게 영어로 말하지 하는 두려움에 계속 머릿속엔 영어표현들을 꺼내보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점원이 "What can I do for you?"라는 말로 저에게 물어 왔습니다. 글로벌 많이 익숙한 표현인데 막상 처음으로 미국인에게 듣는 말이라

그런지 당황이 되더군요. 갑자기 생각해진 영어표현이 턱 하고 막히더군요. 결국 머뭇거리다가 마침 가게 직원이 고기를 굽고 있던군요. 그래서 "I want this meat."라고 응수했습니다. 전 거기서 주문이 끝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더 물어보더군요.

"Do you want a meal or sandwich?"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밀과 샌드위치의 차이가 뭐지... 머릿속으로 순간 생각했습니다. 식사 또는 샌드위치? 전 당연히 밀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뚜둥... 아직도 안 끝났더군요.

"What kind of drink do you want?" 머릿속엔 당연히 생각나는 건 "콜"이겠죠. 마지막으로 "To go? or here?"라고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발음이 너무 쉼 나머지 거의 "프거" 이렇게 들렸습니다. 웃음이 나왔지만 당당히 투고로 얘기하고 결국 음식 값을 계산하고 얻게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까지 제가 처음으로 미국 와서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타지에 가시게 되면 사람마다 악센트와 발음, 그리고 억양이 다르고, 때로는 심지어 사무리까지 쓰는 분도 있습니다. 정규 발음에만 익숙한 저에게는 그저 듣고 의미를 알아듣기 어려워 "What?" 또는 "Pardon me?"로 다시 물어 보는 경우가 많

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고 한국에서도 부지런히 외국인과 대화를 많이 하신분이라면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 오시게 되면 외국인 친구들과 기회가 되신다면 부지런히 친구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표현 익히셔서 '오늘은 이 표현 한번 써보자' 하며 알아듣기 힘들어도 귀를 열고 시도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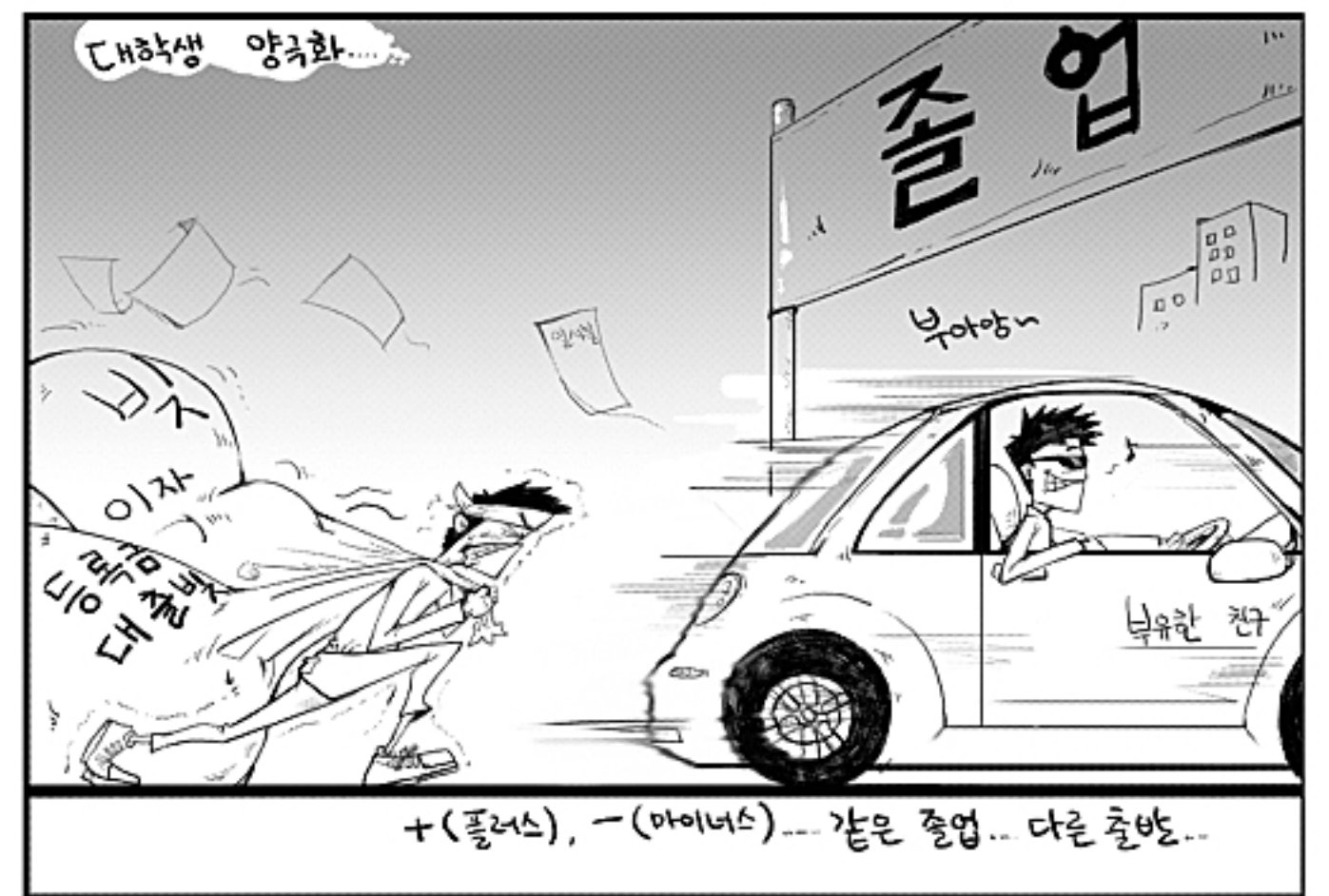
처음에 알아듣기 힘들고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 대화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도 똑같이 저희와 같은 사람입니다. 손짓, 발짓, 그리고 단어만으로도 열심히 대화하고자 시도한다면 외국인들이 추측을 하며 자신이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물어 볼 것입니다. 어떤 것이 축적되게 된다면 어느 순간 문장이 되고, 그 순간 외국인과 외국어로 대화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게 될 기회를 잡게 되신다면 두려움과 좌절을 떨쳐버리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대화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즐거운 외국 생활되시길 바랍니다.

곽희진(원공 4)

## 대학만평

이주영(애니제품 4)



## 즐거운 백수탈출 (진로 탐색 프로젝트) 5주 프로그램

2011년 진로 집단 프로그램 (즐거운 백수탈출)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10명 내외
- 기 간 : 4월 2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4시~7시 (5주간 실시 예정)
- 신청 방법 : 1) 한성공지에 첨부한 신청서 작성  
2) 신청서를 이메일(job1@hansung.ac.kr)로 첨부하여 송부 (마감 : 4월 15일 PM 5시까지)  
- 메일 송부시 메일제목: '백수탈출\_00학과\_홍길동'
- 참석 공지 : 4월 18일 개인에게 전화로 통보 (5회 모두 참석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 진행 장소 : 미래관 지하1층 회의실(잉글리쉬 라운지 맞은편에 위치)
- 참가 대상 : 전학년
- 문 의 : 02-760-4295

- 일정  
1주차 : 4. 26(화)  
만남과 자기 이해의 장
- 2주차 : 5. 3(화)  
선호하는 직업 찾기
- 3주차 : 5. 17(화)  
나를 둘러싼 직업 환경과 진로 계획의 장애를 파악하기
- 4주차 : 5. 24(화)  
직업인으로서의 나의 장점 찾기, 그리고 내가 만약 사장이라면
- 5주차 : 5. 31(화)  
미래의 내 모습 그리기

\* 취업지원관(김민정) 경력 사항 \*

- 現 한성대학교 취업지원관
- 現 보리매 청소년 수련관 상담팀
- 前 성신여대 학생생활상담소
- 前 서울상담심리연구소 상담팀

\* 참가자는 프로그램 참가 전 교내 학생생활연구소에서 MBTI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지를 꼭 가지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 대학생, 등록금 인상에 뿔나다

고려대, 덕성여대 등의 대학생 500여명이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바람에 맞서 "미친 등록금의 나라 이제야 바꾸자. 반값등록금 실현하라"고 한 목소리를 내며 길거리 투쟁에 나섰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지난 2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이하 반값등록금 대회)'를 열면서, 대학교의 등록금 인하와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 것이다.

반값등록금 대회를 주최한 박자은(숙명여대)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이 자리에서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고,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라"고 소리쳤다.

## 비싼 등록금에 자살로 내몰리는 대학생

각 대학 및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1년도 수도권 등록금 인상률 1위는 건국대 4.7%, 2위 세종대 4.5%, 3위 상명대 3.9%로 집계 되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대학별 등록금을 가집계한 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 대학교가 연간 평균 4백2십5만6천원으로 2010년보다 1.1%가 올랐다. 사립 대학교의 경우 전국 4년제 사립대 100곳 중 79곳이 등록금을 인상해 2.3% 오른 7백6십7만7천원을 기록했다. 물가가 올라가자 대학교에서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대학 등록금을 같이 올려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은 '학교에 남은 그 많은 저임금은 무엇이고, 등록금을 인상하냐'며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대회에 참여한 건국대 김소망 학생은 "건국대학교에서는 등록금이 4.7% 인상돼 서울 1위, 전국 2위의 등록금 인상을 보였다"며 "반값등록금 대회에 참여한 이유는 학생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학교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결정에 분노했기 때문이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반값등록금 대회에 오기 전에도 각 대학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지속해 왔다. 고려대에서는 고려대 총학생회가 총장실을 점거, 농성하며 등록금 인상을 철회하라 요구했으며, 서강대는 1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학생총회를 실시해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다. 또 경희대에서는 서울과 수원 국제캠퍼스에서 각각 2천여 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실시해 학교와 인상된 등록금 3%를 환불하기로 협상을 벌여 성공했다. 다만, 경희대를 제외한 타 대학들은 성과가 없는 상태로 등록금 인하를 위해 막대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반값등록금 공약 이루어주세요” “사회·대학 문제는 당신의 일”

이에 무대에 오른 김준환(서강대) 서울대학생연합 의장은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위해 사발과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에도 학교와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게 현실이다"며 "학교와 정부가 진정성있는 대화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단결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하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수의 대학생들이 아닌 많은 대학생들이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학생과 정치인,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학생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민(순실대) 총학생회장은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학생을 위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며 "처음 반값 등록금을 내세워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만 하며 지낼 수 있도록 말한 것처럼, 정부에서 대학생에게 예산을 지원해 학교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의 대표도 등록금 인하를 외치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은 "높은 등록금 앞에 고령층과 결구 목숨

을 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 대학교의 등록금이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싸기 때문이다"며 "기성세대로서, 정치인의 한 명으로 잘못된 현실을 고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생대표의 자리가 한 자리 밖에 없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관한 올바른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권기홍(동국대) 총학생회장은 "동국대에서는 이번 연도에 49%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면서 한 교직원들이 '사립학교는 이보다 더 비싼 등록금을 내야한다.싼 등록금을 내고 싶으면 다른 학교에 가라'란 말을 했다"며 "등록금 투쟁으로 28%로 깎기는 했지만, 대학본부 위주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 측이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면 울릴 수 밖에 구조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인상된 등록금을 납부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위와 같은 문제들로 학교와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 대학생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을 다니는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아직 이와 같은 활동에 무관심해하는 것이다.

신소연 한국외대 학생은 "평소 등록금 인하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트위터에서 반값등록금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 오기 전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는데, 다 거절당하고 결국 우리학교의 학생회 사람들과 같이 오게 됐다"며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신소연 학생은 "사회 문제와 대학 내 문제에 대해 관심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기 바랐다.

한편 우리학교의 등록금 투쟁 상황은 어떠할까? 우리학교의 총학생회를 비롯해 단과대학 학생회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총학생회는 학교에서 등록금 인상을 5%에서 26%로 합의하면서 활동을 마쳐 사실상 우리학교에서는 등록금 투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새로 선출된 '드림하이' 총학생회에서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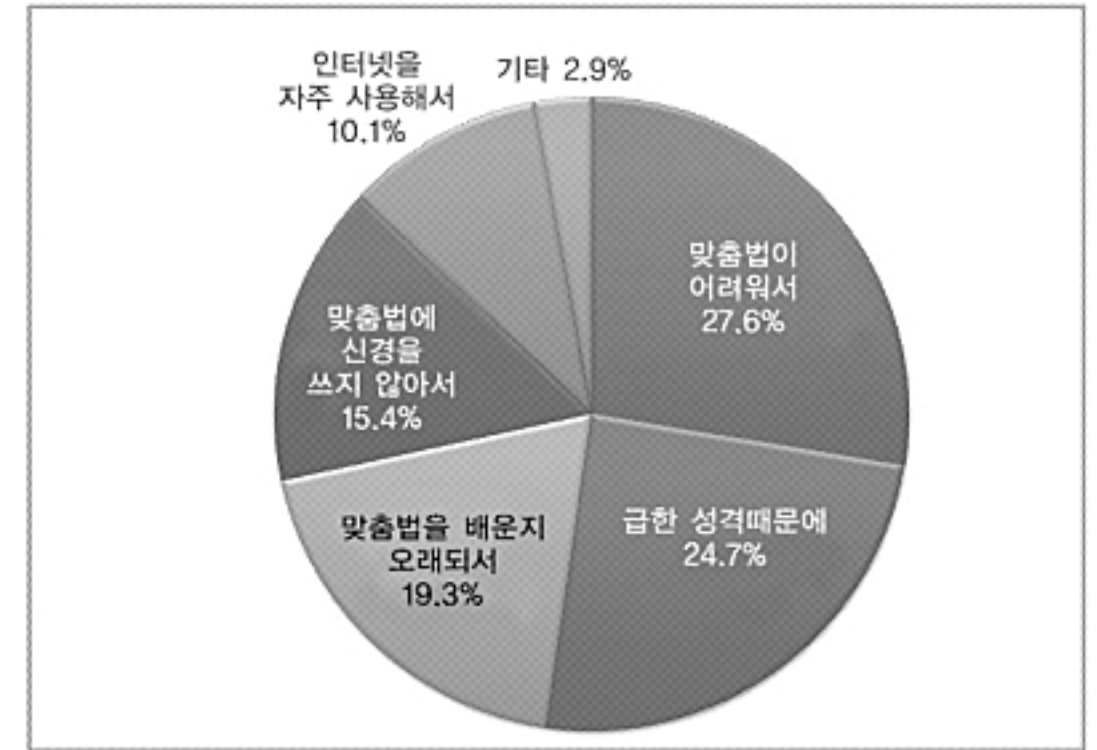
김대성(정통 4)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학생들이 모여 100명, 200명의 적은 수로 등록금 인하 운동을 펼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서명 운동을 통해 2천명-3천명이 학생총회에 참여하도록 약속을 받아,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학교만의 투쟁으로는 등록금 인하는 힘들다"며 "이미 등록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경희대, 고려대 학생회 등에 정보를 얻고자 접촉 중이다"고 덧붙였다.

### ■ 통계로 본 한국사회

## 대학생 73.8%, 맞춤법 틀린다

맞춤법 실수를 하는 이유는?



중간고사와 중간과제를 제출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험 답안과 과제물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맞춤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준(고려대 통계학과 3)학생은 "레포트나 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 맞춤법에 많이 신경 쓰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의 경우 제대로 쓴 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말했다.

서정인(이정 3)학생의 경우 "중요한 문서들을 작성할 경우에는 띄어쓰기까지 신경 쓰는 편이다. 평소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려고 노력하지만 '오로서', '오로써'와 같이 비슷한 표기들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대학생 1천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 73.8%가 '중요 맞춤법 실수를 저지른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맞춤법을 틀리는 가장 큰 이유로 '맞춤법이 어렵기 때문(27.6%)'이라고 전했다. 또 24.7%는 '급한 성격 탓에' 맞춤법을 틀린다고 응답했으며, '맞춤법을 배운 지 오래

래 돼서'라는 대답도 19.3%에 달했다. 그 외 '맞춤법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15.4%)', '인터넷을 자주 사용해서(10.1%)' 등의 의견도 있었다.

대학생들이 맞춤법을 고려했을 때 사용하는 주요 이유로는 '바른 말과 글을 사용해야 하나(35.2%)'와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30.0%)'가 꼽혔다.

김술진(수원대 호텔관광경영 3)학생은 "어릴 때부터 맞춤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레포트처럼 남에게 보여주는 글에서 맞춤법을 틀리면 왠지 못 배운 사람 같다"며 맞춤법을 고려했을 때 사용하는 이유를 밝혔다.

김가현(한국어문 3)학생은 "학과 특성상 맞춤법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된다. 리포트를 쓸 때, 말이는 아니어도 '다른 것'과 '틀린 것', '났다'와 '나다'와 같이 기본적인 맞춤법 정도는 구분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어휘의 쓰임은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73.8%가 맞춤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한 지금, 다가오는 시험 기간에는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며 맞춤법에 좀 더 신경을 써보자.

김하늘 기자 b4dreamsz@hansung.ac.kr



# 대사협 해외봉사프로그램 모집 안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는 2011년도 하계 단기 22기 해외봉사단원을 선발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발은 학교에서 10명을 추천하고,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선발됩니다.

1. 제출기한: 4월 15일(금)까지
2. 제출장소: 학생지원팀(창의관 1층)
3. 지원대상: 본교 재학생(졸업학기, 대학원생, 휴학생 제외 - 대사협 모집요강 내용)
4. 추천인원: 10명 이내
5. 파견국가: 8개국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우간다, 탄자니아, 베트남, 라오스
6. 활동내용: 교육봉사, 특화봉사(의료봉사, 기술봉사), 문화교류 등
7. 주 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8. 후 원: 교육과학기술부
9. 한국대사회 선발일정
  - 4.1 ~ 4.22 : 봉사단원 모집
    - \* 대학교별 마감일 상이(우리대학교는 4월 15일 기한)
  - 4.27 : 봉사단원 심사 및 선발
  - 4.29 : 봉사단원 최종합격자 발표
  - 5.5 ~ 5.7 : 사전교육 및 발대식(2박3일)
  - 5.8 ~ 8.18 : 팀별 사전교육 2회 실시(1박 2일)
  - 6.27 ~ 8.22 : 단기해외봉사 출국 및 현지 활동
    - 공모전 진행, 활동 이력관리
    - 해단식 및 활동보고회(8월 26일)
    - \* 추진 과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10. 제출서류
  - 별첨 2-6 한국파일 학생용 1부
  - 참가신청서(엑셀파일)(메일전송 : leemh@hansung.ac.kr)
  - 여권사본 1부(여권이 없을 경우에는 추후 제출)
  - 성적증명서 1부
  - 어학증명서 사본
  - 각종(기재한) 자격증사본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봉사활동인증서 등 관련서류 (해당자의 경우) 1부 등
11. 선발기준
  - 발대식 (5월5일~7일) 및 사전교육 참석이 반드시 가능한발대식 불참자는 탈락
  - 전체 학기 평균 성적 B0 이상인자(평균 성적 B0: 3.0/4.5)
  - 파견국별 요구 전공자(교육·의료·기술) 및 특기자 우대
  - 영어 또는 한자어 능력 일정기준 보유자
12. 참가비용
  - 가지역(필리핀, 베트남): 1인당 1,100,000원 (대학지원금 550,000원, 학생참가비 550,000원)

- 나지역(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1인당 1,300,000원 (대학지원금 650,000원, 학생참가비 650,000원)
- 다지역(탄자니아, 우간다): 1인당 1,700,000원 (대학지원금 850,000원, 학생참가비 850,000원)
- 참가비 납부방법
- 1차: 학생 참가비는 학교에서 일괄 수납 후 대사협에 납부
- 2차: 대학 지원금 납부

13. 환불규정
  - 피견 취소 발생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비 환불을 신청할 수 있음.
  - 발대식 이전: 참가비 100% 환불 (학생 및 대학)
  - 발대식 이후: 환불 없음
  - 단, 항공권이 예약되면 발대식 날짜와 상관없이 환불 없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간 사회 속의 메커니즘, 희생제의의 인간의 주술적 사고 본능과 희생양 만들기의 위험성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아포칼립토 (Apocalypse)>를 보면 인간들을 제물로 잡아 심장을 적출해 주술사에게 넘기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을 신에게 바쳐 초자연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생명을 희생한다는 단어 'Sacrifice(희생)'와 의례를 뜻하는 단어 'Ritual(제사 의례)'을 합쳐 '희생제의(Sacrifice Ritual)'라 표현한다.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만이 희생제의의 전부는 아니다. 희생제의는 종교와 문화가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를 개입하면 돼지를 잡아 고사를 지낸다. 돼지의 생명을 희생시켜 신에게 개입하는 가계가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또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양을 잡아서 제사상에 올린다. 모두가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켜 초자연적인 신에게 의례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제의의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기독교에서 예수가 사람들의 죄를 모두 가지고 죽는 모습 또한 희생제의의 한 단편이다. 예수의 죽음을 자체가 하나의 희생이고, 모든 인간의 죄를 없앤다는 주술적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희생제의가 인간 생활과 문화의 다양한 부분에서 출현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주술적 사고본능 때문이다. 이에 이태주(교양학부)교수는 "사람들은 항상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주술적인 현상이라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술적인 사고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과학과 종교가 공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람들은 아직도 주술적인 사고를



▲ 렘브란트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생명을 신에게 바치는 희생제의의 개념을 잘 보여준다.

를 때까 많다.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을 망친다'는 통념이나 어떤 사건에 '천벌 받은 것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이런 말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근거도 없고, 과학적이지도 못하다. 단순히 과거의 무속신앙이나 종교적인 신념이 그대로 내려온 것일 뿐이다.

문제는 사람들의 심리에 갑자기 큰 충격이 발생하면 여차주니없는 희생양이 발생 한다

는 사실이다. 예로 페스트 창궐 당시 유럽에서 자행된 유대인 학살이 있다. 페스트는 당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었다. 유럽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결국 희생양이 필요했고, 당시 돈을 많이 모아 부를 축적하던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 되고 말았다. 유대인들이 돈에 눈이 멀어 무릎 꿇을 땀을 흘리는 무어와 함께 엄청난 수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다. 일본 관동대지진

에서 제일한국인들이 희생당한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만약 이성적인 판단이 선행되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갑자기 일어난 재난에 판단력이 마비되고 주술적인 사고가 발동한 것이다. 이태주 교수는 "희생제의에는 사회 질서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다.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는 어떤 희생양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 희생양은 소수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희생제의의 성질 때문에 사회는 희생제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에이즈(AIDS)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졌던 억압이 그런 대표적인 예이다. 동성애자들과 에이즈 사이에는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두 가지 모두 불쾌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했다.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종교계에서는 이들의 존재 자체를 맹목적으로 비난했다. 이처럼 사회가 희생제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소수가 억압을 받는 것은 물론, 그 행위가 절대 다수에 의해 정당화될 위험성이 있다.

결국 희생제의는 단순한 문화인류학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론이나 사회문제 등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사회에서 악용될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이 희생제의 없이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당장이라도 너무 많은 격정에 짓눌려 미쳐버릴 것이다. 하지만, 희생제의라는 메커니즘 안에서 자신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박경민 기자 jmgmin@hansung.ac.kr

## 동양화 스토리

### 꽃도 피려하고 버들도 푸르려지려 하네



▲ 김홍도 '무동', 자본수묵담채, 28x 23.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봄날은 짧다. 오는가 하더니 간다. 봄날은 그러나 출연해서 활짝하다. 오죽하면 '봄밤의 한 토막은 천금과 같다'고 했을까.

수줍은 목련꽃 한 잎 일 열리고, 밧고레 화사하게 웃는 진달래, 저만치 다가오는 봄의 색은 한 폭 풍경화로 빛이진다. 어디선가 흥겨운 노래가 봄 기운을 타고 나직하게 들려오는 듯하다.

김수장의 '해동가요'에 "꽃도 피려 하고 버들도 푸르려지려 하네. 빛은 솔 다익었으니 벗님네 감시다. 그려, 육각(六角)에 동글게 앉아 봄맞이하리라"하였듯이 이는 곧 봄이 찾아올 것을 알고 미리 빛어 놓은 술 적당히 익어갈 때, 마침 꽃도 피려고 울릴거리고 버들은 나날이 푸르려지는 봄날, 김수장은 벗들과 함께 인왕산 필운대 옆에 있는 육각현(六角峴)으로 봄맞이하러 갈 준비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봄과 어울려 듣는 옛 노래, 그중에서도 낡은 노래책 속에 파묻혀 자칫했으면 영원히 잊어버릴 뻔한 옛 노래는 더욱 정겨우면서도 살갑다. 조상들이 남긴 옛 노래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역사와 그 역사를 살아낸 조상들의 삶, 그 삶이 어찌 지금 우리를 살고 다르다 할 수 있오랴.

김수장은 노가제에 살면서 노가제시경(老歌齊十景)을 얻었다고 하는데, 즉 자기 고향의 노가제에서 세상의 허망한 욕심과는 무관하게 해가 떠오르고 저녁노을이 지고, 꽃이 피고 꽃향기 피어오르고, 이파리가 모두 떨어졌어 있다고 해도, 그 역사와 뿌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당장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책의 저자는 이 사실을 알고, 희생 제의를 근절하기위한 포석으로 이 책을 집필한 것이 아닐까?

박경민 기자 jmgmin@hansung.ac.kr

우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헤치고, 눈으로 보게 하여 널리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우리의 옛 선조들의 그림에도 음악과 관련된 그림들이 있다. 예를 들면, 김홍도의 풍속화첩에 전해지는 '무동(舞童)'이다. 그림에는 해금, 대금, 피리, 장구, 북의 반주에 맞추어 무동이 춤을 추고 있다. 궁중의 각종 행사에서 정재(正才)를 추는 남자 어린이를 무동이라 하고, 정재를 추는 여성은 여기(女妓)라 한다. 무동은 궁중연회에서 춤과 음악을 담당했다. 무동으로 선발될 수 있는 나이는 시기별로 약간씩 달랐지만 대개 8세부터 15세의 어린 남자 아이에게 자격이 주어졌다. 어린아이들 뽑아 악무를 맡기다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무동으로 쓸 수 없게 되면 고궁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가운데 음악을 잘 익혀서 악공이 될 자격을 갖춘 무동은 장악원의 연주활동에 악공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단원 김홍도는 서민과 시장의 세속적인 일들을 다룬 풍속화를 개척하였다. 그의 '무동' 그림은 풍악의 기락이 숨 가쁘게 높아감에 따라 춤추며 돌아가는 무동의 옷자락에서 사뭇 바람이 이는 듯 하고, 피리를 부는 말뚝 병거지의 사내는 양 불이 입김으로 터질 듯 부풀었으며, 흥에 겨운 군상의 표현은 자못 열기 찬 울동감을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단원의 풍속화에는 구수하고도 익살스러운 흥겨움이 화면에 넘쳐 있다. 마치 김수장의 해동가요의 시가와 어울려 단원의 무동 춤과 음악의 흥겨움으로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

조선 영조 때의 김수장의 '해동가요'는 '창구영언', '가곡원곡'과 더불어 3대 시조로 일컬어지며, 사람들에게 입으로 외

이근우 / 현 조선대학교 대학원 강사

## 학술서평

# 희생제의와 희생양 만들기

『희생양』 / 르네 지라르 지음 / 민음사



사람들이 사회적 메커니즘으로서 희생제를 이해하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희생제의라는 것도 본래 문화인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다른 범주로 확장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 책의 저자는 희생양이라는 개념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책을 저술했다. 그는 책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박해들을 예로 사용해 희생제의의 개념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박해의 전형을 나누어 각각의 희생양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박해가 이루어

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박해를 받는 대상은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책임소재보다 훨씬 큰 잘못을 떠안게 된다. 심지어 책임소재가 전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잘못을 뒤집어쓰게 된다. 그리고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박해와 희생이라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한 번 희생양이 되면 사회는 그 희생양이 살 수 없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고,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되는 것이다.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박해의 이유가 절대 논리적이 못하며, 일방적인 폭력만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박해에서 나타나는 폭력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믿어지는 것들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즉, 사

회가 인위적으로 왜곡한 사실마저 폭력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 폭력을 당하는 희생양들은 맞서 싸울 지지가반조차 부족하다. 당연히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묵묵히 참을 뿐이다.

이런 희생양의 기록은 역사서 뿐 아니라 신화에서도 나타난다. 신화에는 일반적으로 위기가 문제 발생하고, 그 위기를 만든 장본인 또는 원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신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장본인을 추방시키거나 원인을 없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박해를 마치 성공한 폭력인 것처럼 미화시키는 것이다. 거기에 수많은 상징과 은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화에서 희생양을 확실하게 구별해 내기란 힘든 일이다.

때문에 책에서는 이런 신화의 내용들도 본

석해 희생양이 있는 신화와 없는 신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희생제의의 개념을 적용한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이 적용이 상당히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희생양을 만들고 박해하는 사회의 메커니즘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희생양 만들기는 인간이 처음으로 신과 종교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부터 이뤄져 온 것이다. 따라서 논리성과 도덕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다고 해도, 그 역사와 뿌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당장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책의 저자는 이 사실을 알고, 희생 제의를 근절하기위한 포석으로 이 책을 집필한 것이 아닐까?

박경민 기자 jmgmin@hansung.ac.kr

## 기업맞춤형 전문연수 받고취업도 한다!

# 미래 기술 인재, 이공계 대졸자를 위한 2011년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연수생 모집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시행하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인재인 이공계 대학 졸업자에게 현장실무형 직무교육과 기업현장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어려운 취업의 문!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을 통해 당당히 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산업현장 수요와 이공계 교육간의 질적·양적 불일치(mismatch)를 해소와 청년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미취업상태인 이공계 졸업생들에게 기업맞춤형 전문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산업현장 수요형 산업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사업

### 2. 교육내용

미취업상태인 이공계 졸업생들에게 국내 기술인력양성 전문기관에서 기술교육 및 현장실무연수를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개인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산업인력양성 전문교육프로그램입니다.

### 3. 지원내용

구분	전문 연수	기업 연수
교육기간	총 6개월 내외	
	4개월 내외	2개월 내외
지원내용	교육운영관련 제반경비(전담인력 인건비, 강사료 등) 지원	
	연수생	연수생 연수수당 (1인당 월30만원)
교육내용	전문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 기본 직무소양 및 기초 이론	주관기관의 유관기업에서 실제 업무 체험연수

### 4.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 이공계 대졸(전문대, 대학원 포함) 미취업자로서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11. 5월 이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졸업학점 이수 및 졸업증명서확인서 첨부시 '11. 8월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 지원제한대상 : 정부 실업대책 지원금 수혜 중인 자, 동 사업에 참여하여 연수수당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 또는 참여 중인 자, 대학원 재학 중인 자
  - 우대 대상자 : 보존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2년이상 장기실업자, 여성인력
- 모집기간 : 연수시행기관별로 모집마감이 상이하므로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 참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pms.kiat.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연수생 등록 후 연수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주관 기관에 연수 신청
  - 온라인 접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연수생 등록 매뉴얼) 참조
  - 희망 주관기관의 연수신청 : 해당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의 모집공고 참고 및 연수담당자에게 세부사항 문의후 신청
- 접수기간 : 2011. 3. 4(금) ~
- ※ 주관기관별 교육내용, 모집기간, 전형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각 희망주관기관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사업관련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02-6009-3264) e-mail: jmj0737@kiat.or.kr

| 사설 |

### '스마트'하게 생각하라

세계 100대 부호의 1/5, 노벨상 수상자의 1/3(문학상, 평화상은 제외), 아이비리그 대학교수의 1/5이 유대인이다. 이 놀라운 유대인들의 성공은 그들의 교육에서 나온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단순하고 육체적인 일일지라도 생각을 하며 일하면 더 정확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노동시간이 긴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바로 이 대목과 연관이 있다.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럿 있지만 결정적인 것의 하나는 직원들의 창의성이다. 창의성이 부족하면 업무과정이 경직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예컨대 업무과정에는 직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개선해야 할 숨은 문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생각하는 직원들만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생각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학에서부터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 놓아야 산업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산업현장과 비슷하다. 예컨대 대학생들의 과제를 지도하다보면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다. 수평적 사고만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무척 애를 쓴다. 그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보기 힘들다. 노력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마치 노동시간은 길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우리 산업의 현주소 같다. 다시 말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수평적 사고과정에만 치우쳐 있고 선택한 아이디어를 심화시키는 수직적 사고과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수평적 사고과정은 느슨하게 다양한 발상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한 발짝 떨어져 사물을 보는 태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니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기 쉽다.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를 흘려보내기 쉽다.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수직적 사고를 통해 과제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수평적 사고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찾았으면 그것을 다듬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거의 다듬지 않고 낱 것 그대로의 아이디어로 과제를 한다. 다이아몬드는 원석을 다듬어야 나온다. 다듬는 과정이 수직적 사고과정이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에 걸친 문제해결과정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문제해결과정에 처하면 많은 학생들이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다시 수평적 사고과정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장애물 하나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세상에 없다.

수직적 사고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감과 욕심이다. 당연히 만나게 될 장애물을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욕심 있게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장애물은 과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기를 일찌감치 멈춘다. 쉽게 지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잠시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모든 임직원을 정기 휴가 이외에 일년에 두 번 더 쉬도록 하고 있다. 현업에서 떨어져 수평적 사고를 하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할 힘을 비축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육체의 힘이 아닌 생각의 힘으로만 높아질 수 있는 단계에 와있다. 이 점에서 기업이나 대학은 똑같다. "Work hard"가 아니라 "Think smart"가 중요한 시대가 된 지 오래다. 개인의 성취도 마찬가지다.

의 화 정



김정우 교수  
(한국어문학부)

나의 학창시절, '2말 3초'라는 말이 유행하곤 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까지는 확실한 남자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요즘도 그 말은 유효한 모양이다.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까지 신랑감을 구하지 못 하면 연애를 하지 못 한다는 말이란. 물론, 이 말을 사회 현상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대학생들에게 취업을 비롯한 진로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2말 3초에 연애를 하지 못 한다면, 연애가 진로 준비에 우선순위에 밀려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2말 3초가 지나서까지 확실한 남자친구가 없다면, 안정적인 진로를 걷게 될 때까지 연애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나도 학생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2말 3초를 명심하라는 말을 하곤 한다. 물론 연애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내가 2말 3초로 시한을 그어 이야기하는 것은 졸업 후 자신의 목표를 적어도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까지는 정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2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진할 시간이 있다. 그리고 설혹, 어느 순간 그 목표가 잘못될 것임을 알게 되었을지라도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니, 부인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이 말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불행히도. 도널드 칸(Donald Brian Caine)이라는 영국 출신 신경학자는 말했다. "이성은 결론을 낳고, 감성은 행동을 낳는다." 가만히 생각해보라.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일이 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결론은 있지만, 하기 싫다는 감성적인 행동이 우선하는 것이다.

목표에 관한 2말 3초의 메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 하지만, 내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루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목표가 명확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이성적인 이해에 의해서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공감까지 이르렀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거나 혹은 잘 모르던 분야는 무엇이 있는지를 꼭 넓게 알아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든다.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관련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수집에 들어간다. 그 분야의 선배들을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는 하나의 리스트에서 지워가며, 최종적으로 자신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자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서이다.

지난주쯤 시작한 것 같은 1학기도 벌써 절반이 지났다. 나머지 절반도 지나간 절반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이다. 조금만 더 길게 보면 대학 4년도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간다. 명심하라, 2말 3초.

그런데 만일, 이 글을 읽는 자신이 2말 3초를 이미 지났다면? 그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된 계도에 올려놓는 길이므로.

448호를 읽고

#### 1. 448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4면 "우리는 학교와의 직거래를 원합니다."

타인과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응당한, 지식인으로서의 대학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참담할 정도로 부당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폭넓은 견문을 갖추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해당 기사가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학우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 문제에 보다 집중해서 보도해야 하는 언론으로서의 의무도 충족한, 좋은 보도였다고 평가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큰 문제이니만큼 지속적으로 보도해 학생들의 각성을 촉구해주길 기대해 본다.

#### 2. 448호에서 아쉬웠던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1단으로 구성된 선거 관련 기사들이 전체적으로 아쉬웠다

본격적인 선거철을 맞이하여 여러 후보의 공약 및 비전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늘상 부진한 선거참여율과 그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에 대한 논의가 적어 아쉬웠다. 학생들의 참여와 행동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의가 부족했다고 할까?

또한 공약 소개는 장황하게 보도되었지만 정작 후보의 입장에서 그것들의 실현가능성과, 시의 적절성,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시도가 없어 아쉬웠다.

#### 3. 한성대신문에서 다뤘으면 하는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청소노동자들에 이어 대학사회의 가장 큰 문제, 비정규직 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보도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지?

#### 4. 취재면, 사회면, 학술면, 문화면, 기획면 등 각 면을 평가해주세요.

취재면 : 교내 화재방지 및 학생들의 안전불감증을 경계하려는 목적은 달성한 듯 보인다.

하지만 1면의 사고로 '교내 화재 급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과장한 듯한 느낌을 준다.

학술면 : 분야별 학습잡지를 추천

하려는 의도는 돋보이나 잡지 각각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부족하고 권장하는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예를 들면, '등단과 문예비평에 관심 있는 학우들이 눈여겨 보길'와 같은) 학생들의 선택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문화면 : 일상의 음악에서 상업적인 목적을 간파해낸 그 예리함이 탁월했다. 꼼꼼한 인터뷰로 주장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어 만족스럽고 보도였다.

#### 5. 사진의 크기, 기사의 글자 크기, 헤드라인, 컬러 등 디자인적인 면은 적절했나요?

전체적으로 무난했다.

다만 선거취재기획은 '실천으로 보여주세요'라는 부제에 걸맞게 학생회의 병폐 및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거나 실천을 촉구하는 인터뷰를 실어와 부제와 조화가 되지 않았을 게 아쉬움이 남았다.

추가로, 낙산만평의 디자인 질은 훌륭하나 보기 좋은 그림이라고만 생각될 뿐 만평으로서의 전달성이 미약하다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 6. 448호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



을 종합해 의견을 정리해 주세요.

본격적인 선거철을 맞은 각종 취재 및 기획에 따라 지면이 한층 풍성해졌다. 다만 일반적인 보도보다는 조금 더 새로움을 추구하고 구성을 달리하는 참신함을 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선거라는 학교 전체의 행사에 학보로서 일정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약을 연구해 학생들에게 일련의 방향을 제시해볼지도 좋을 것 같다. 이번호는 일상성에 의문을 제시한 문화면 보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독자투고-개인칼럼

김미래 (역사문화 4)

지혜란 (한국어문 2)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 봄에 편지 한 통 써볼까요?

옛날에는 먼 곳에 사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했다.

좋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야 귀해 서신 하나조차 함부로 쓸 수 없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어디든지 연결해주는 인터넷이 있다. 최근에는 편리하다 못해 똑똑하기까지 한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SNS 등이 등장했고 이제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 없이도 연락을 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편리한 디지털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에 반해 아날로그는 점점 잊혀지는 경향이 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편해져서일까? 아니면 도시에서의 삶이 너무 바쁜 것 때문일까? 요즘은 옛날과는 다르게 종이 없는 것도 아닌데 특별한 상황 아니면 편지를 잘 쓰지 않는 것 같다.

편지는 비록 디지털에 비하면 대화의 속도는 한참 더딜지라도,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을 때가 많다. 왜냐하면 편

지에는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정성과 시간, 무엇보다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각종 고지서와 광고지만 가득했던 우편함에서 문득 오래된 친구의 편지를 발견했을 때의 반가움, 고마움, 기쁨을 느껴보았다면 아마 잘 알 것이다. 예상치 못하게 받은 편지에 보드라운 감동이 있다면 보내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고 미리 말했었을 때는 편지를 기다리는 동안의 기대감과 설렘이 있다.

맘에 드는 옷을 택배로 주문했을 때처럼 빨리 보고 싶고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고 너무 늦어지면 초조하고, 받았을 때는 즐겁다. 바로 이것이 너무 빠른 디지털이 전할 수 없는 조금 느린 아날로그만의 감성이다.

물론 편리해진 의사소통 방법으로 매일매일 인부를 주고받는 것도 좋다. 하지만 가끔은 예쁜 편지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은 편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따뜻한 바람이 기분 좋게 지나가는 봄이니까 말이다.

한성대 신문사에서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며 느낀 행정 및 복지시설에 대한 불편한 점, 공개기구 또는 학생회에 건의사항, 학우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 등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을 주제로 한 글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길 은 한성대 신문 여론면에 들어갑니다. 한성대 신문사는 교내 구성원들의 솔직하고 참신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원고매수 : 5매(이미지 포함) 7매(이미지 미포함)
- 마감일자 : 4월 28일(목)까지
- 투고대상 : 한성대신문을 읽는 교내 모든 구성원
- 혜택 : 신문에 독자투고 실린 분께 소정의 원고료 제공
- 투고 주제 : 학교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좋은 점, 아쉬운 점, 건의사항 등
- 투고방법 : 이메일 press@hansung.ac.kr
-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 02)760-4186
- 편집국장 : 010-7124-5831

### 한성대신문사

# <표현 능력 상담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2011년도 1학기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목 적 ◎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함양

#### 상담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1년 3월 14일(월) ~ 2011년 6월 10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서평, 킬링 등
4. 신청 방법 :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 메뉴 이용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5. 상담 내용 :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 상담 진행 방법

1. 상담 신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2.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현황은 MY 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진행은 상담원과 학생 간에 면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상담 시간은 학생 1명 기준으로 30분~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5. 상담 신청자 유의사항
  - 1) 상담 신청 시 홈페이지의 신청 항목에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2) 상담 전에 과제 해결에 필요한 참고 서적을 미리 읽어와야 합니다.
  - 3) 상담 시 과제 준비 과정과 준비한 글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 저속함의 미학 ‘키치’

## 대중예술과 소통하며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키치



▲Michael Graves가 설계한 Dolphin & Swan Hotel 전경



▲Charles Moore가 설계한 이탈리아인 광장

땅 위에 놓인 집들은 서로 모여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고 문화를 반영한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땅 위에 놓인 집은 아파트 등 주거·상업시설이 대부분이고 경관과의 조화를 무시한 채 화려한 외관만 강조하는 도시의 모습이 보일 때가 많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독특한 워딩홀의 외관을 비롯해 화장품 매장, 대학의 건물들은 서양의 고딕건축과 바로크 양식 등을 표방하고 있다. 국적불명, 정체성이 모호한 건물들은 '키치'에서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키치'는 모조와 위조품을 비롯해 대량생산된 값싼 예술을 의미한다. 키치의 개념은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으로 인해 예술이 상업화되면서 등장했다. '키치, 우리들의 행복한 세계' 조종걸 지음, 웅진에서는 '헨벤스러운 자리'에 허위의식이 자리잡은 통속예술이다. 그것은 자기기만적이고 그 감상이 용이하고 피상적이며 사이비예술이다. 감상자에게 아첨하고 순수예술에 기생하는 거짓된 예술이다'며 '하지만 이들은 고급예술, 진지하고 세련된 예술로 받아들여지지 원한다'고 키치의 성격을 설명한다.

이러한 키치의 성격은 주위에 세워진 건축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떻게 이해할까? 키치'가브리엘 지음,

미술문화)에서는 "건축의 키치는 동시대의 대표건물들이다. 특히 이 건물들이 과거의 건축장치를 불러오고 역사적 건축요소들을 본뜬 때 그러하다"며 "변화가에는 외관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석조가 아닌 건축물들이 르네상스풍의 기둥을 가지거나 벽까지 패여있어 건축물이 지나야 하는 통일성을 찾아볼 수 없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고 사례를 설명한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같은 화려하지만 주위의 어울리지 못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디자인의 탑을 뒤집어선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이인회(부산대 건축학과)교수는 "고급 상업시설이 많은 곳에서 건축물의 외관에 유럽의 고전주의 양식들을 채용한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유럽의 귀족적인 이미지를 상품과 결부시키려는 보편적인 전략"이라며 "잘 디자인된 격조있는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시각적인 강조에 편중된 나머지 무분별하게 장식하여 경관의 부조화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키치적 현상을 건축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인회 교수는 "과거 모더니즘 건축은 기능·합리적이며 계몽주의적인 것을 추구한 반면 30여년 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대중적 눈높이의 재미있는 상징과 상징성에 기반한 디자인을 추구했다"며 "이는 키치와 같은 미국의 대중예술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이해하기 어려웠던 과거의 논리적인 건축디자인이 이번

에 대중적 수준에서 감각적으로 소화되는 용이한 측면이 생겨나 건축이 대중예술과 소통하면서 대중의 영역이나 상업적인 영역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도구가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이해할까? 키치'에 따르면 "어떤 건물이 규모가 거대하면 디자인이 과장되거나 불균형적인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키치'가 아닌 유티주의, 형식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키치'가 가지는 이데올로기를 말하기도 한다. 또 "여기에 키치생산의 두 가지 판별기준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 하나는 과거에 성공한 것을 모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미롭고, 구미에 맞고, 매력적인 것에 대한 편애에 편승하는 것. 다시 말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건축가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가 설계한 윌드디즈니의 'Dolphin & Swan Hotel'과 찰스무어(Charles Moore)가 설계한 이탈리아인 광장을 예로 들어 키치적 건물의 사례를 설명한다.

그는 "Dolphin & Swan Hotel"은 두 마리의 돌고래와 백조의 큰 조각들과 버나나인양과 파도의 큰 벽화들로 구성되어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시키는 가벼운 디자인인 반면, 이탈리아인 광장은 사실리즘의 지형 위에 과거 이탈리아를 연상시키는 고대 건축양식의 열주를 얹어 놓아 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든 조형물"이라며 "둘 다 과거의 건축적 장치·요소를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재현한 대표적인 사례이나

전자는 과도한 스케일의 확장된 이미지인 반면 후자는 과거양식의 시각적 요소로서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이미지"라며 그 차이를 덧붙였다.

그러면 이러한 '키치적'인 건물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 이 교수는 "키치는 주로 시각적인 모방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쉽게는 건축물의 외관이나 실내요소 중에서 친숙한 것들을 모방하거나 꾸며서 대중들이 쉽게 인지하거나 감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장식이 있다면 키치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감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문화적 의미가 있지만 저속함이 지나치게 되면 싸구려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창조적인 어떤 건물이나 구조도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외관의 화려함에 치중해 주위와 어울리지 않는 고딕양식을 흉내내거나 무미건조한 은회색빛의 시멘트로만 가득할 뿐, 거기에 나름의 철학과 사회적 고민이 내포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키치'는 모방을 기초로 한 복제품이므로 원본에서 느껴지는 아우라를 느낄 수는 없지만 대중들이 예술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의 문턱을 낮춘 노력의 결과로도 비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영화 <반드시 크게 들을 것> 그리고 귀담아 들을 것

### 인디밴드 음악은 배고프고 힘들다?



<반드시 크게 들을 것>은 그 편견에 못 박기 귀담아 들을 영화다. 밴드 '타바코 쥬스'의 드러머이기도 한 감독 백승화는 '밴드 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세간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 드럼 스틱 대신 카메라를 들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이렇게 묻고 싶어질 거다. "음악하니까 즐겁죠?"라고.

<반드시 크게 들을 것>의 중심에는 라이브 클럽이자 인디레이블인 '루비살롱'이 있다. 흥대에서 이를 꽤나 알겠다는 리규영은 애인의 갑작스러운 임신 때문에 인천으로 낙향, 부평 모텔촌에 차린 가게다. '홍대의 클럽데이처럼, 부평에 모텔데이 만들어 보겠다'는 이 특이한 남자의 시작은 미비했다. 하루 평균 관객 6-7명. 모텔데이는커녕, 모텔로 쫓겨나지 않는 게 다행이지 실을 정도다. 하지만 그의 음악 인생은 찌질이들의 대마왕 '타바코 쥬스'와, 우주에서 왔다는 록 전도사 '캘럭시 익스프레스'가 가세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6mm 카메라 하나로 완성된 <반드시 크게 들을 것>은 '루비살롱'과 이 레이블의 두 밴드 '타바코 쥬스', '캘럭시 익스프레스'에 대한 1년간의 생생한 기록이다. 그것도 아주 사적인 기록, 촬영과 편집까지 도맡은 감독이 '타바코 쥬스'의 멤버라는 사실은 카메라 앞에 선 인물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무기로 작용한다. 실 때 뛰어나는 질문은 '아동 본다. 아동 때문에 컴퓨터도 큰 걸로 바꿨다'는 현역 스텝에 대답이 튀어나오고, 19금 가독한 음담패설이 오고간다. 거침없는 육성은 물어 무엇 하랴. 가식을 집어 던진 그들의 모습은 가공하지도, 익히지도 않은 날 것

그대로 영상에 투과된다. 1990년대 중반 홍대 록의 부흥을 이끌었던 '크라임 넷' 한정록의 거친 내레이션도 그 날것의 생동감을 한층 배가시킨다.

'타바코 쥬스'와 '캘럭시 익스프레스'의 상반된 스타일은 각본 없는 이 다큐멘터리에 극적인 재미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폭발적인 무대매너를 지닌 '캘럭시 익스프레스'가 무대와 방송을 중립무늬하며 승승장구할 때, 술 마시다 공연 핑크 내기가 다반사인 '타바코 쥬스'는 여전히 '루비살롱' 주변에서 쥬스를 땀다. 결국 멤버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보컬 권기욱은 무단 탈퇴 소동까지 벌인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권기욱의 말이 압권이다. "열심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린 열심히 안 하잖아. 우린 안 될 거야, 아냐" 석고대죄 해도 시원치 않을 판 악 인생은 찌질이들의 대마왕 '타바코 쥬스'와, 우주에서 왔다는 록 전도사 '캘럭시 익스프레스'가 가세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꼭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리규영은 말한다. "꼭? 아무것도 없는 거지. 놀았으면 끝인 거야. 그게 록이야" 순간을 즐기려는 것. 그 속에서 행복을 얻는 것. 이것이 <반드시 크게 들을 것>이 말하는 록 스피릿이다. 그리고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다.

글·정시우 (무베스트 기자)

## Diamond Records

### <Nevermind (신경 쓰지마)>



너바나(Nirvana)는 커트 코베인(Kurt Cobain)이 주축이 되어 만든 **그린지** 록 밴드이다. 데뷔 앨범인 <Bleach(표백)>가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얻으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너바나는 대형 음반사인 게펜레코드와 손을 잡고 2집 <Nevermind(신경 쓰지마)>를 기획했다. 그리고 앨범이 대중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Dangerous'를 밀어내고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앨범 제목인 <Nevermind>는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의 앨범 <Never Mind the Bollocks, Here's the Sex Pistols(하찮은 것들은 신경 쓰지마, 여기 섹스 피스톨즈가 있잖아)>에서 따온 것이었다. 이는 섹스 피스톨즈의 펑크 록을 너바나가 계승한 것이라 해서 할 수 있는데, 너바나가 조금 다뤄온 그린지 음악이 **펑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는 점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앨범의 수록곡 모두가 철저한 **쓰리 코드 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뛰어난 테크닉이나 사운드를 내세운 곡은 없다. 이는 모두 펑크 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하지만 헤비메탈 같은 무거운 분위기는 섹스 피스톨즈의 펑크 록 이미지와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커트는 이 앨범을 만들었을

때 헤비메탈 밴드인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처럼 들렸다고 시인한 바 있다. 너바나 특유의 우울하고 무거운 분위기는 이들의 음악이 단순한 펑크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너바나와 그린지 록의 출현에 평론가들은 새로운 대안이라 평했다. 하지만 대안 음악은 시간이 지나면 주류 음악에 속하게 되는 필연적인 운명을 타고난 존재다. 커트 코베인이 이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의 방향 또한 시작되었다. 3집 앨범이었던 <In Utero(자궁 속으로)>는 그 고뇌의 결과였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태어난 순수한 펑크, 즉 자신이 태어난 자궁 속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다. 때문에 커트는 콘서트에서 <Nevermind>의 히트곡들을 일부러 제외하기도 했다. 하지만 너바나는 이미 주류에 포함되어 버린 존재였고, 주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전부 무산 되어버렸다. 커트는 결국 더 이상 고뇌하는 것 대신

유서를 쓰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4월 8일 머리에 산탄총을 맞은 채 누워있는 커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너바나 역시 6년간의 짧은 밴드생활을 접고 해체했다. 그 뒤 많은 밴드들이 너바나의 음악을 계승했지만, 대안 음악의 한계를 온전히 벗어난 밴드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린지:** 미국의 시애틀 지방에서 유행한 음악의 동향. 너바나, 펄 잼 등의 아티스트들에 의해 전 세계로 확산됨.

**\*\*펑크:** 록의 본래 성질을 되찾고, 제도권을 공격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장르. 섹스 피스톨즈, 그린데이(Green Day) 등이 대표적.

**\*\*\*쓰리 코드 주의:** 3개의 코드만을 사용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펑크록에서 주로 사용.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사진이야기



'Dreams come true'  
제가 의상을 전공하는데 자켓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옷을 밑에 두고 그 위에 옷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도구들을 나열해 봤어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저 많은 도구들이 필요한 것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한영준 (의패 4)